

‘고 천상병 시인 무대로 돌아오다’

오는 24일 의정부시무용단 창작무용극 ‘歸天’

천진난만했던 시인의 삶과 아름다운 시 세계를 간결하면서도 아름다운 무대와 다양한 영상, 그리고 몸짓으로 만날 수 있다.

또 시인의 대표작인 시 5편과 시인의 중요한 삶의 고비가 여우려져 춤으로 펼쳐지며, 시인과 새

의 이미지를 중점적으로 사용하여 순수함과 환상적 이미지가 돋보이는 무대가 오는 24일 오후4시 의정부예술의전당 대극장 무대에서 마련된다.

의정부시무용단(단장 이미숙)은 제5회 정기공연 및 제1회 천상병

예술제 행사로 창작무용극 ‘歸天’을 무대에서 선보인다.

소홍삼(의정부예술의전당) 대본, 윤우영(대진대학교 교수) 연출, 김준섭(한국예술종합학교 연극원 무대미술과 강사) 무대디자인, 김명남(의정부예술의전당) 조명디자인을 스텝으로 하여 이미숙 단장이 안무한 창작무용극 귀천은 시인의 일대기를 춤극으로 형상화한 작품이다.



이번 작품은 프롤로그에서 별빛이 영롱한 밤하늘 아래, 연덕위에 앉아 시를 쓰는 천상병 시인의 모습으로부터 시작된다. 시인과 아이들의 어울림으로 시인의 동화적 삶을 예고한다.

두 번째 장에서는 시인의 일상을 무용수들의 마임으로 재미있게 형상화한다. 시인의 일상이 끝나면 브람스 교향곡 제4번 1악장이 흐르며 음악에 젖어드는 시인의 모습을 보여준다. 제3장에서는 혼돈(동백림 사건)을 다룬다. 춤추던 시인에게 갑작스런 시련이 닥쳐오고 시인의 고통이 시작된다. 제4장 날개 잃은 새에서는 폐인이 되어 출몰하는 시인의 모습이 고통스럽게 병실의 침상으로 향한다. 제5장 바람의 길은 과거의 회상을 통해 시인의 갈망과 그리움을 형상화한다. 제6장은 그리워하던 여인과의



△ 박영울 화가

만남을 보여준다. 제7장은 환희, 결혼의 환희가 풍타주로 형상화되고 무용수들은 꽃춤으로 행복한 결혼을 축하한다. 8장은 귀천으로 시인의 승천을 형상화한다. 시인은 하늘을 향해 있는 끝없는 계단을 오른다. 그 귀를 새들이 뒤따르고 여인이 지상에서 이를 지켜본다. 막이 내린다.

이번 공연은 경기문화재단과 의정부예술의전당이 공동개최하며 의정부시무용단 주관해 마련한 공연으로 아름다운 시인의 세계를 한눈에 읽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공연문의 031-852-9103)

동시대를 살아가는 포천의 예술인(2)

서양화가 ‘박영울’

포천의 그트머리 신복면 청산에 소나무를 그리는데 미술평가가 한 명 있다는 얘길 들었다. 그리고 며칠 후 초여름 같은 봄 날, 그를 만나러 길을 나섰다. 이제 막 꽃망울을 터트리기 시작한 봄꽃들을 뒤로하고 청산이라는 지명답게 잿나무로 둘러싸여 푸른 기운이 서늘하게 느껴지는 마을로 들어섰다.

그런데 그림수록 소나무는 존재 자체가 고결한, 참 매력적인 존재였다. 척박한 땅에서도 생존할 수 있도록 스스로를 뽀족한 것으로 만들고, 꽃이라는 우리의 상식을 깨는 술방울까지. 그뿐이 아니다. 회화적 측면에서 봤을 때도 굉장히 조화를 갖춘 모습이다. 80년대 수장한 시절 탓에 욕살이를 하는 등 어찌던 그의 삶도 결코 평범하지 않은, 고통을 밖으로 드러내면서도 오히려 당당한 소나무를 닮았는지도 모르겠다. 그는 “내 성향이 안티(anti)적이지만 아니었다”고 토로하며 “대세를 비웃는 야유꾼으로 대세에 견줄 수 있는 대응세력이 되는 것이 내에

“한국적 미의식 정립한 작가로 남고파”

인적 드문 마을 살며 그림 통해 시대와 소통 “소나무, 그림수록 고결하고 매력적인 존재”

“찾기 어려울 테니 제가 중간에서 기다리겠습니다”라는 그의 약속대로 중간에서 그를 만났지만 포장도 안 된 돌길을 게다가 경사 60°의 산길을 또 5분여 따라가야 했다.

“차 소리가 안 들리는 게 가장 좋죠. 아늑하고 개발도 덜 되고 관광객도 많고... 누가 그러는데 풍수지리학적으로도 좋은 기운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서양화가 박영울(47, 문명의 이기를 떠나 적막한 이 곳에서 작품활동에 몰두하고 있는 그에게 찾아오는 사람들마다 물었을 터이다.

그는 또 방문자의 우려를 짐작한 듯 “심심할 틈도 별로 없어요. 가끔 사람이 그라를 때는 차가지고 서울 나가기도 하고”라고 덧붙였다.

그를 얘기할 때 꼭 빠지지 않는 것이 있다. 바로 청와대에 작품이 소장된 작가라는 것. 노무현 정부의 출범과 함께 그의 작품 ‘일자곡선’이 청와대에 전시됐다.

우선은 ‘일자곡선’이라는 작품명이 독특하다. “상반된 개념끼리 만나면서 발생하는 불안정한 요소가 더욱 생명력을 느끼게 한다”는 그의 설명이다.

“찾기 어려울 테니 제가 중간에서 기다리겠습니다”라는 그의 약속대로 중간에서 그를 만났지만 포장도 안 된 돌길을 게다가 경사 60°의 산길을 또 5분여 따라가야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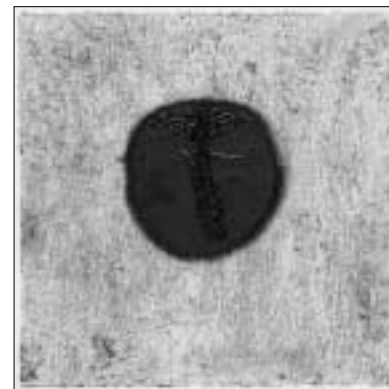
“차 소리가 안 들리는 게 가장 좋죠. 아늑하고 개발도 덜 되고 관광객도 많고... 누가 그러는데 풍수지리학적으로도 좋은 기운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서양화가 박영울(47, 문명의 이기를 떠나 적막한 이 곳에서 작품활동에 몰두하고 있는 그에게 찾아오는 사람들마다 물었을 터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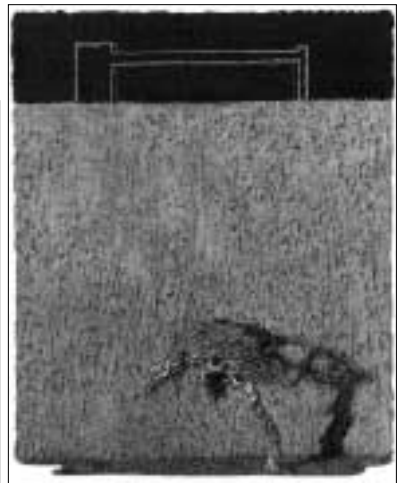
그는 또 방문자의 우려를 짐작한 듯 “심심할 틈도 별로 없어요. 가끔 사람이 그라를 때는 차가지고 서울 나가기도 하고”라고 덧붙였다.

그를 얘기할 때 꼭 빠지지 않는 것이 있다. 바로 청와대에 작품이 소장된 작가라는 것. 노무현 정부의 출범과 함께 그의 작품 ‘일자곡선’이 청와대에 전시됐다.

우선은 ‘일자곡선’이라는 작품명이 독특하다. “상반된 개념끼리 만나면서 발생하는 불안정한 요소가 더욱 생명력을 느끼게 한다”는 그의 설명이다.



△ 박영울 작가의 작품 '일자곡선'



△ 박영울 작가의 작품 '일자곡선'

이희용의 연극이야기(90)

계획적인 문화예술 공간의 형성을 논의하자.

공간이 시간이라는 것이 결부되면 새로운 관계의 형태적 진형이 이루어진다.

어떤 장소에서 무엇이 어떤 것과 만나서 그 진행 여부에 따라 정신과 신체사이의 조화로운 작용이 일어나고 여러 가지 색다른 반응을 도출하게 된다.

무대 그리고 객석과 무대사이, 또 그 공간 사이의 배치와 높고 낮음과 형태는 새로운 만남의 성격을 결정한다.

최근 들어 공연장 공간에 대해 바뀐 개념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퍼블릭 로비(Public Robby)’ 개념이다. 그래서 사무실 등 기본적인 행정공간을 제외한 나머지 공간은 상시 개방되는 공간으로 간주되고 있다.

그 의미는 사람들로 하여금 극장에 쉽게 들어오게 하는 것이전에 극장이라는 하드웨어 자체가 사회 속에서 어떤 의미를 갖느냐 하는 생각의 발상이 바뀐 것이다.

자세히 말하여 퍼블릭 로비의 기능은 커피숍, 레스토랑 등 만남의 공간을 확보해 일상을 극장 안으로 끌어들이는 역할을 한다.

이 의미는 공연과 공연장이 사회 적으로 갖는 의미가 어느 정도 합리적 중용에 이르게 된 것을 말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래서 극장에는 장소의 형성과 공간의 의미를 어떻게 부여되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공간으로 자리잡게 되는 것이 보통이다.

그래서 새로운 어떤 계획을 세울 때는 현재 위치하는 장소의 효율성과 앞으로의 잠재력을 생각하여 계획적인 문화적 상가의 유치와 유도가 극장의 효용성에 크게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런 예술적인 공간의 계획적 유치와 문화 타운이 형성되어야 문화와 예술을 체험하기 바라는 사람들의 빈번한 왕래를

불러오고 결국 사람답게 살고 있다는 인식을 체험하게 하여 여러 가지 삶의 방식을 정확하게 알아낼 수 있고 살아가는 방식의 변화와 앞으로의 기대를 내다보며 끝이 열려있는 공간으로의 활용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이제 우리도 새로운 문화예술의 공간으로 확보된 공간의 온전하게 만들어 가는 차원에서 사람이 스스로 찾아가 자연스럽게 만날 수 있는 장소를 공연 전시장 주변으로 적극 유치하여 시민과 가깝게 친화 될 수 있고 항상 열려있어 편하게 찾을 수 있는 행복한 장소로의 발전을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발전을 위해서는 지금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정책적인 지원이 우선적으로 필요하고 예술가와 행정가 그리고 건축업자와 상인들을 아울러 공연전시장 주변의 효율적 발전에 대한 충분한 의사 소통이 필요하다.



△ 이희용 포천 연극협회 회장 본지 지문위원

그리고 앞으로 우리 주변에 형성된 정성공원과 반월아트홀 주변의 개발에 있어서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에 대해서 진지한 연구와 실행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라고 걱정만 하지 말고 세밀하고 합리적인 전략적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실천에 옮겨야 후손에게 누가 되지 않을 것이다.

이제 과거에 반복되었던 실수를 반복하지 말고 온전한 계획과 건강하고 수준 있는 장소로의 변화와 장소의 보존을 위하여 모두가 함께 심도 있게 논의하자.

- 고객이 먼저 알고 찾는 방일해장국, 이제는 그 자존심을 지켜드립니다 -

새로운 차원의 조리법으로 한우의 양, 내장, 선지와 우거지 등 각종 엄선된 재료와 자연소스를 직접 만들어 먹는 재미와 담백한 맛과 영양을 자랑합니다

대한민국 해장국의 명가, ‘방일해장국 선단점’ 오픈



- 해장국/ 5,000
- 소고기해장국/ 5,000
- 내장탕/ 7,000
- 내장볶음/ 12,000
- 수육/ 20,000



경기도 포천시 선단동 505-4 / 전화 : 031)541-4781 / 대표 : 홍순정